



바다가 건네고 산바람이 피워낸

부안의 봄을 걷다

차가운 겨울 바닷바람이 순해지기 시작하는 3월 하순, 부안은 가장 먼저 봄의 기별을 전합니다.

겹겹이 쌓인 채석강의 세월 위로 노란 유채꽃이 피어나고, 천년 고찰 내소사의 전나무 숲길 끝엔 하얀 매화 향기가 머뭍니다. 2026년 봄, 부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봄꽃 명소를 만나보세요.



봄꽃 언제 어디로 보러 갈까

3월 초순~ 중순 '봄의 전령사' 야생화와 사찰꽃

- 변산바람꽃&복수초(내변산 일대)
- 홍매화&산수유(내소사)

3월 말~ 4월 초 '꽃의 향연' 벚꽃과 수선화

- 개암사 벚꽃길 (개암동 벚꽃축제)
- 모장마을 수선화(변산면)
- 청림 벚꽃길

4월 중순 ~ 5월 초 '바다와의 조화' 유채꽃

- 수성당 유채꽃밭
-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5월 순백의 샤스타데이지


- 변산 마실길 2코스

TIP : 방문 전 물때표를 확인해 채석강 해식동굴까지 둘러본다면 완벽한 봄나들이가 됩니다.




부안 마실길 사스타터페이지



 **개암사 벚꽃길**

분홍빛 설렘의 터널 봄의 정점을 찍다

부안에서 봄의 정점을 찍는 곳은 단연 개암사 진입로입니다. 약 3km에 걸쳐 이어진 벚꽃 터널은 드라이브 코스로도, 천천히 걷기에도 그만입니다. 3월 말부터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해 4월 초순이면 눈부신 꽃비가 내립니다. 웅장한 우금바위를 배경으로 훑날리는 벚꽃은 오직 부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한 폭의 산수화입니다.

청림 벚꽃길 

아는 사람만 찾는 드라이브 명소

상서면 청림리 일대의 도로는 아는 사람만 찾는 드라이브 명소입니다. 길게 뻗은 벚꽃길을 따라 한적하게 봄 기운을 만끽하기 좋습니다.



내소사 매화

고풍스런 단청아래 매화향 가득

화려한 벚꽃보다 조금 먼저 봄을 알리는 것은 내소사의 매화입니다. 600m 전나무 숲길의 피톤치드를 마시며 걷다 보면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수줍게 핀 홍매화와 청매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3월 하순, 사찰의 고풍스러운 단청과 어우러진 꽃그늘 아래서 잠시 일상의 소란을 잊고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수성당 유채꽃

푸른바다 수놓는 노란 물결에 탄성 절로

적벽강 절벽 위, 수성당 주변은 3월 하순부터 노란 유채꽃이 가지개를 엮습니다. 서해의 파란 바다와 대비되는 강력한 노란색은 보는이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변산 마실길을 걷다 보면, 꽃향기와 갯내음이 어우러진 부안만의 특별한 봄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새만금환경생태단지 유채꽃



넓은 부지에 자전거 도로까지

비교적 최근에 입소문을 타고 있는 숨은 명소입니다. 넓은 부지에 조성된 유채꽃밭 사이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어 가족 단위 나들이객에게 좋은 곳입니다.

